

## 창원시, 2012년 녹색성장 생생도시 선정

경남 창원시가 2012년 가장 우수한 <녹색성장 생생도시>로 선정됐다.

창원시는 12월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녹색성장 생생도시 우수기관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06년 <환경수도>를 선언한 이후 친환경도시 인프라를 구축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녹색성장 생생도시는 에너지, 교통, 물 순환, 자원 재활용, 녹색산업, 생태축, 시민운동 등 7개 분야를 골고루 갖춘 도시를 일컫는다.

창원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탄소포인트제 도입, 소각장 폐열 에너지화, 태양광시설 설치 등에 주력해왔다.

공영자전거 <누비자> 보급과 전기자동차·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통한 녹색 교통체계 구축, 생태하천 조성, 민관 협력 도랑 살리기 운동, 마산만 연안과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관리, 강변여과수 개발 보급 등이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과 함께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녹색의 날 지정 운영, 시민·학생 환경교육을 시행한 점도 호평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2/12/14>